

※ 사잇소리 현상, 사이시옷 규정

사잇소리 현상

참고) 사잇소리 현상은 문자 그대로 '없던 소리가 생기는 현상' 이고, 이러한 사잇소리 현상을 어떻게 표기해야 하는지 정의 내린 것이 '사이시옷 규정'이다.

사잇소리 현상은 '특별한 이유 없이' (=음운 변동 규정들로 설명이 되지 않으면서)

- ①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 되는 경우
- ② 'ㄴ' 혹은 'ㄴㄴ'이 덧나는 경우를 설명할 수 있다.

동일한 조건 아래에서, 어떤 경우에는 사잇소리 현상이 벌어지고 어떤 경우에는 벌어지지 않는 등 **예외가 많다**.

(그래서 사잇소리 규칙이 아닌 사잇소리 현상인 것이다!)

사잇소리 현상이 일어나기 위한 **전제 조건(최소한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 ① 합성명사일 것
- ② 앞말 끝 혹은 뒷말 처음이 울림소리일 것

위의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 사잇소리 현상은 세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① 예사소리 → 된소리

(앞 말이 울림소리로 끝나는데 뒤 단어의 첫소리가 안울림 예사소리일 경우, 뒤 단어의 첫소리가 된소리가 된다.)

예 : 고기 + 국 → 고깃국[고김꾹/고기꾹], 초+불 → 촛불[촌뿔/초뿔],

예외) 개+구멍 → 개구멍[개구멍] 돌담 → 돌담[돌담]

② 'ㄴ'이 앞말 끝소리에 덧남

(앞 말이 모음으로 끝나는데 뒤 말이 'ㄴ','ㄹ'로 시작되는 경우, 앞 말 끝소리에 'ㄴ'이 덧난다)

예 : 코+날 → 콧날[콘날] 아래 + 마을 → 아랫마을[아랜마을]

예외) 도토리+묵 → 도토리묵[도토리묵] 머리+말 → 머리말[머리말]

③ 'ㄴ'이 앞말 끝소리와 뒷말 첫소리에 각각 덧남

(앞 말과 상관 없이 뒤 말이 ㅣ나 반모음 ㅣ로 시작하는 경우 앞 말 끝소리와 뒤 말 첫소리에 각각 'ㄴ'이 덧난다)

예 : 나무 + 앞 → 나뭇앞[나문닙], 깨+앞 → 깻앞[깻닙]

사이시옷 규정(한글 맞춤법 4-4-30)

앞서 살펴본 사이소리 현상을 표기에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 당연히 사이소리 현상이 일어난 합성명사 만을 그 적용 대상으로 한다. 사이소리 현상이 발생 했다면, 사이시옷을 써 주는 것이 기본 원칙이다. 사이시옷을 쓰지 않는 예외의 경우는 다음과 같다.

- ① 사이시옷을 넣을 '물리적인 공간'이 없을 때 = 앞 말에 종성이 있을 때
- ② 한자어+한자어 → 6개 예외 제외(횃수,숫자,셋방,찾간,긋간,틔간)

유의) 표준 발음법 제 29항은 사이소리 현상에 관한 규정이 아닌, 'ㄴ'첨가에 관한 규정이다.

표준 발음법 제 29항 :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냐, 녀, 뇨, 뉴]로 발음한다.